

##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실천

### — 복지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기반의 실천과제

홍 선 미\*

- I. 들어가는 글
- II. 지방화와 복지환경
  - 1. 지방분권과 복지
  - 2. 실천현장과 보호체계의 변화
- III. 지역화를 위한 실천적 기반
  - 1. 사회복지실천의 맥락과 거시적 환경에 관한 이론적 이해
  - 2.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을 위한 실천과제
- IV. 나가는 글

### I. 들어가는 글

사회복지실천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때 시대적 변화와 상황적 조건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전통적 흐름은 외부적 맥락과 영향력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며 사회적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변화를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순응적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회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기 보다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이익 보다는 국가나 다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부교수

오늘 논의의 주제인 지방화 역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어진 환경으로서 수용하기 이전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변화가 사회복지 실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가치가 구현될수 있는 방향으로의 흐름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분권이 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외현화된 특징과 전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사회복지실천에서 거시적 환경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기능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개입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개별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자원의 매개기능을 넘어 적절한 서비스환경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과정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참여적 실천활동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지식과 기술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 II. 지방화와 복지환경

### 1. 지방분권과 복지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와 사적서비스의 증가(privatization of government services)로 특징지어지는 거버넌스는 공공관리의 주요 흐름이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핵심이 정부의 비용감소라는 목적에 치중되는 경우 지역의 자치적 역량강화와 혁신을 통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경험적으로 갖지 않은 정부는 성장의 논리에 밀려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위기는 복지국가로 발전할만한 기본적 토양 자체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복지적 가치와 인본주의적인 의식을 위축되므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체계마저 침식시키고 절대적 빈곤개념이나 잔여적 복지수준을 넘어설 기회를 잃게하였다. 전 국민의 기초보장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감이나 이념적 지지기반이 미약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본질적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분권은 불평등의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위한 책임성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화의 특징적 요소인 분권(decentralization)과 탈관료화(debureaucratization)는 서비스수혜자의 의사결정권과 지방정부와 지역내 서비스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므로써 지역육구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력을 억압해 온 강력한 국가개입의 역사는 집중화된 현 체계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탈중앙화에 따른 복지구조의 개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감소와 위계적 구조의 분산은 복지재정의 불안정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력과 조직력, 재정력에 있어서 자율적이며 자생적이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고유의 권한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또한 사적서비스의 증가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쟁적 관리는 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온 지역의 서비스인프라 속에서 지역사회의 육구에 적합한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불확실하다. 아울러, 정치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지역공동체의 자조능력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의 운영과 비공식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의 거시적 변화가 안정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체계를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 관계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과 대인적 서비스의 책임소재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므로써 안정적인 복지체계와 수준을 유지하며, 지자체의 전문적이며 자율적인 운영을 지지하며 복지환경을 개선하도록 돕는 중앙정부의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 특히, 일차적인 육구의 스크리닝과 초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단위의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지역의 복지육구에 대한 산발적이며 중복적이던 서비스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인권과 삶의 질 향상보다는 정부의 재정절감을 위한 탈시설화의 숨겨진 목적으로 인해 이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했던 외국의 경험을 상기할 때, 제도적 변화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이전에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핵심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2. 실천현장과 서비스보호체계의 변화

생활시설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이용시설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지역기반의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논의의 이슈는 서비스기관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기능적으로 지역복지서비스 기관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파악 및 평가,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역할, 지역사회 잠재자원의 발굴 및 활용,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개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부족한 정부지원금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태와 행정관서의 지도감독은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지역토착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을 준다.

한편, IMF이후 빈부격차와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급속한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문제의 발생은 지역내의 복지수요를 급격히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2003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욕구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서비스전달의 주체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비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는 서비스의 통합과 자원조정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체계의 부재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기존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포장만을 달리한 기관 프로그램 차원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기관과의 연계를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로 의뢰하는 서비스체계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공적관리체계 때문이며, 클라이언트의 의뢰와 서비스의 선택권을 갖게 되는 관리체계의 공공성과 서비스기관의 전문성간의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그간 이루어져왔던 서비스전달체계를 둘러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는 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부재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는 시·군·구 복지조직은 중앙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문성을 개발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지역의 일차적인 보호체계로서 모든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 내에서 취약계층의 발굴이나 상담, 자원개발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부담과 한계를 느껴왔다. 또한, 공공·민간 복지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지역내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면서,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정체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내 기관들간의 조정기능을 담당할

핵심주체와 개별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관리할 실천주체에 관한 논의가 보다 심도 깊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가운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인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에 관한 지속된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내 서비스기관들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복지사업의 방향성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기능하는 지역복지협의체와 함께 공적체계로서 기초적인 전달체계의 초기관리기능을 담당할 사회복지사무소는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파편화 등의 문제점들을 줄이며 지역사회의 안정적이며 포괄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시스템과 연결된 지역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공급자들의 네트워크 구성은 다른 시각과 입장을 갖는 중앙-지방, 공공-민간, 민간-민간간의 이해관계와 업무분담에 관한 축적된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즉, 자원의 기획과 조정, 배치와 같은 공공조직의 관리기능과 민간조직의 서비스 기능이 모호하며 민간기관들간의 서비스 영역에 따른 기능분화가 미약하여 책임과 통제, 역할분담을 둘러싸고 체계간의 흐름과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욕구와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조정에 필수적인 사례관리기능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무엇보다, 절대 빈곤자를 돕는 기존의 복지개념을 확장한 지역기반의 기초적인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며, 복지, 보건, 고용, 주거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보호관리에 대한 책임과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책임성있는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보호체계나 서비스비용지불을 위한 공적자원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개별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지역내 타 기관들이나 주민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내의 서비스연계망을 개발하고 가용자원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 특히, 지역의 사회적 목표를 세우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은 사회복지사의 보수적인 시각과 기술의 부족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실천으로 이원화된 복지의 접근방식으로 인해 직접적인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통제하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실무자의 관심과 영향력이 차단되므로써, 지역의 서비스전달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중심의 복지계획과 복지에산의 수립과정에 대한 실무자의 참여는 지역의 유형이나 서비스체계의 특성을 살린 합리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 III. 지역화를 위한 실천적 기반

#### 1. 사회복지실천의 맥락과 거시적 환경에 관한 이론적 이해

##### · 구성주의적 시각과 실존주의적 관계

우리의 현실을 조직하고 객관화시키는 과정은 순환적 사회구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사회구조와 개인들은 복합적인 구성체의 일부로서, 개인들은 제도화와 합법화를 통해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적 의미를 창조하며 사회는 구조 속에서 개인들의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나선구조를 구성한다. 클라이언트가 지각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구성적 견해는 각기 다른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맥락을 이해하고 그 속의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 정의와 의미에 주목한다.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개인이 자율적인 자조직 체계(self-organizing system)<sup>1)</sup>로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지각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환경의 존재론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내적과정을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은 집합적인 환경적 변화를 위한 동질화된 집단의 실천활동에 적용가능성이 적어보인다. 특히, 체계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지식과 실천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경향은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과 사회적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과 통찰이 인식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Imre, 1984). 그러나, 일반화된 의미보다는 현상학적 환원과정(phenomenological reduction process)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관점은 해석과 지각의 차이, 맥락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개인적,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의미를 탐색하는데 학문적 가치를 갖는다(Wakefield, 1996). 또한, 전문가중심의 규범적인 문제의 해석과 권위적이며 치료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자율적인 결정능력을 존중하며 내부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역동과 성장잠재력을 강조하는 점은 지역사회내 다양한 집단들을 존중하며 주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접근에 철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유사하게, 클라이언트의 삶의 양식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변화를 강조하는 실존주의적 사고는 지역사회와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적응방식에 적합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한다. 이러한

1) 개인적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존재론적 이상주의인 급진적 구성주의에 비해 비판적 구성주의는 가상적 실재론에 기초하여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 실재세계의 존재와 외부의 영향력은 인정하며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받아들인다 (Turner, 1986).

사고는 사회의 주류적인 가치를 소유한 전문가의 치료적 패러다임이 개인이나 집단을 역기능적으로 진단하고 기능적으로 적용시키므로써 또 다른 사회적 통제나 낙인의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반면, 개인의 고유하며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며 이들의 잠재력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며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전문가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도록 돕는다(Saleebey, 1992). 아울러, 인본주의적 접근들에 영향을 미친 비심판적이며 수용적인 전문가의 태도나 다양한 경험에 집중하며 클라이언트의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의사소통방식은 지역주민들과 소외된 클라이언트집단의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활용될 수 있는 임상기술이다. 특히, 실존적 가치를 기초로 클라이언트의 세계를 인식하며 독특한 행동방식과 역동성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구성하며 환경적 개입의 접점(port of entry)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이외에도,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 기초한 여성주의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편적 진리보다 하나의 맥락안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현실과 그 의미에 기반한 담론에 가치를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며, 강점관점에 기반한 유연성(resiliency)의 개념은 거시적 수준에서도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이슈에 대해 공동의 의식속에서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을 증가시키고 대처하므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을 강조한다(Saleebey, 1992).

## · 생태적 관점

전통적 접근방법에서는 전문가로부터의 공식적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중심으로 문제해결과정이 이루어졌으나 비공식적 지지망과 근린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며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역할이 생태적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의 성원들과 전문가들이 구성원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느끼며 상호지지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조하며 다양한 체계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접근은 지역사회에서 역동적으로 관련을 맺는 사람과 조직간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교류뿐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기초가 된다(Rein & White, 1981). 즉,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로부터의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호요인을 찾고 지지를 얻기 위해 공식적 지지체계를 포함하는 관련체계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

고 상호연결성을 늘리며, 지역사회자원이나 제도를 확장하는 과정에 다양한 체계들이 함께 참여하므로써 공동체성을 촉진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체계가 기능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하위체계들간의 적절한 역할과 분화, 지역사회를 구분짓는 체계의 경계적 특성, 항상성에 대한 체계의 경향성과 균형적 특성 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동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체계론적 개념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환경사이의 상호성이 개인과 그를 둘러싼 직접적인 주변체계들과의 관계로 한정되면서,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제반조건들과의 관계는 모호해진다. 이는 환경이 인간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으므로써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적응상태가 깨지게되나 역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들의 동기와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사회가 기능하는 방법에 변화를 초래하므로써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기본전제가 갖는 한계로 여겨진다. 즉, 지역의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참여적 과정을 통한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이 환경으로 받는 영향력에 비해 거시적 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은 불균형한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 · 정치적 이해

사회복지실천 과정은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기존의 방식을 수용하거나 기존의 방식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 인간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존의 조직이나 사회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사회복지실천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상대주의적 인식론이나 사회체계내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초점을 둔 접근들은 사회적 개입의 존재와 정치적 영향력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실의 구성과 정의는 사회적으로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것으로 비롯된다는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급진적이거나 구조주의적인 권력관계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생태체계적 관점도 상호성에 기초한 기능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다 기본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행동적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이론가들은 과학적이며 정치적인 아젠다를 분명히 하는 관점과 이론을 찾고자한다. 이는 기존의 많은 실천지식들이 삶에 대한 기능적 사고에 의존하므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조건과의 상호영향력을 분석하고 개개인의 욕구나 문제와 사회적 구조나 조건의 변화를 연결시키며 쟁점화시키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임파워먼트 접근(empowering approach)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에 의한 힘의 불균형을 인식한다. 그러나, 임파워먼트가 지역사회 또는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체계에 대한 개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과정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경우, 개별사례에 대한 옹호적 접근을 중심으로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존감향상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접근은 전문적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환경과 자원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전제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역량과 참여가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는 경우, 지역사회내의 경제적 자원, 지위, 의사결정권등의 불균형한 분배로 인해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는 소외집단에 대한 집단적 역량의 증진과 사회적 변화목표의 달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얻은 힘과 자원은 사회의 긍정적 변화보다는 동일한 환경에 속한 타인들로부터 취해지므로써 집단내부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왜곡되며 배타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기위한 지역내 기관들과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을 통해 쉽게 파악되는 것으로서 정해진 파이를 구성원들이 나눠가져야 하는 제한된 개념이다. 한편 권력이 구성원간에 공유되면서 조직의 힘과 역량을 증가시키므로써 절대적인 파이가 커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확장된 개념의 임파워먼트는 보다 구조적인 시각으로 연결된다. 진보적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둔 구조주의 사회복지실천은 참여민주주의를 기초로 사회적 목표와 평등을 강조하며 공동체 개념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Mullaly, 1993). 또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의 제반기회와 주요결정과정으로부터 차단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현실생활에서 권력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특성에 주목한다(송다영, 2003). 이러한 시각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에 기본가치를 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문제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현상의 결과보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집합적이며 참여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평등을 기초로 한 사회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파워먼트의 접근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나 사회의 구조적 관계내에서의 권력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하므로써 임파워먼트가 갖는 개별사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이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식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Mullender & Ward, 1991). 최근의 복지권 운동을 비롯한 소외집단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은 사적문제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개별화된 접근을 넘어 사회운동적 차원으로 확대시킨 예로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천의 사상적 기초와 관점을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부터 사회민주주의로 전환시키며 치료자로서의 역할로부터 행동주의자로서의 역할의 전이를 요구한다(Epstein, 1969). 지배적인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정치적 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이익집단들간의 갈등과 숨겨진 사회적 의제를 발견하며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통한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집합적인 개입노력은 급진적인 유물론에 기초한 개혁적인 접근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환경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는 합리주의에 기반한 진보적 차원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표 1> 사회복지사의 목표와 성향(Epstein, 1969)

	개인의 적용	사회의 변화
빈민	전통주의자 (traditionalist)	행동주의자 (activist)
모든계층	치료주의자 (therapist)	개혁주의자 (reformist)

## 2. 지역사회중심의 접근(community-based approach)을 위한 실천과제

### · 소비자 중심의 접근

지역사회중심의 보호란 단순히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 민간기관과 정부의 상호책임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체계를 뜻한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과 삶을 공유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공통성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며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지방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동시에 그 내부구성원들이 합의된 통제력을 갖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는 막연하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권위와 전문적 숙련성(professional expertise)을 강조하는 온정주의 혹은 가부장주의(paternalism)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Reamer, 1983). 지역사회의 문제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주의에 기반한 실천은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

며 가치중립적으로 기관내의 서비스 효율성에 관심을 갖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소외집단의 욕구와 사회구성원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올바른 결정과 집행과정의 감시자 역할을 적절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지하는 가치를 근거를 두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지와 선택보다는 전문가의 주도적 개입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주의의 경향 때문에 실천의 기본가치들이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고 그 결과 전문가의 지지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당사자주의로 흐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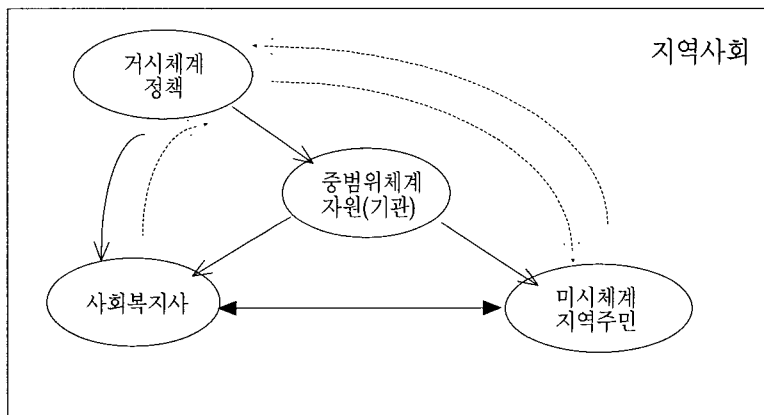
지방자치는 '가까이 있는 정부'에 의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감시역할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역내의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공감은 보다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된다. 기관은 클라이언트의 참여에 대해 개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며, 전문가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환경과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얻는 역할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내 NGO들은 정부의 통제나 의도로부터 독립적이며 지역을 옹호하는 참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복지예산에 대한 욕구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권리와 사회복지에 대한 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사회 참여적 활동을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으로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 관련 법안들과 지역의 복지운동은 대부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화된 사회운동이 지역사회중심의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가치나 이념, 접근방식, 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쟁점화하고 연대하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이슈를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시민단체의 연대는 전문성과 운동성을 통합하므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 · 통합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사회복지실천은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의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능력을 회복하고 강화시켜 주는 전문적인 활동이며, 동시에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가 그들이 바라는 목표에 합당한 사회적 조건들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개입활동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사회적 실체와 연결시키는 개입의 틀을 통합적 접근 속에서 구체화되며,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 원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초점을 두는 실천기술을 활용한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간과 환경사이의 상호교류와 총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가진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파급되는 삶의 문제(problems in living)를 상황 속에서 파악하며 다양한 수준의 체계들에 대한 동시적 접근을 요구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천활동은 개별구성원을 비롯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다중체계의 개입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며, 실천맥락과 개입대상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접근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배경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관주도의 지역사회개발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전통적인 방법론의 분류방식에 따라 지역복지가 개별지도와 분리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실천활동을 위한 개입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은 개인이나,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의 차원에서 미시적 실천기술과 거시적 개입활동을 연결하지 못하므로써 지역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림 1>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접근모형

또한, 지역내의 서비스연계망의 활용과 지역복지협의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중범위체계를 구성하는 조직, 기관들간의 역동성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들간의 협력적 기능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식적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지역의 서비스기관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서비스구조와 운영에 관한 공통적 사고는 지역사회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고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서비스의 특성과 분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복지실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공식적 지지망이외에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주변 체계들로 구성된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을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와 자원의 조정과 연계 기능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나 장애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사회복지실천의 대표적인 통합적 접근모델이다. 사례관리자는 개별 조직들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서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조직들 간의 구조적인 통합이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달체계의 연계나 조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절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 서비스의 통합성(integration of services),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to services), 사회적 책임성(accountability)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서비스의 조정 및 제공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의 책임을 강조한다. 횡적으로는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욕구에 반응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다중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장기적인 욕구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하고 서비스제공자들 간의 갈등을 줄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용시에 접하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강조하는 옹호적 접근을 활용한다.

### ·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기술의 개발과 전문가의 역량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회구조는 인간이 구성하는 산물로서 인식하며 따라서 사회구조를 구성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서 클라이언트를 인식하는 전문가의 시각의 전환과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속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의 탐구방법과 내용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개입과 구조적 변화에 관한 실천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환경적 개입에 대한 구

체성이 떨어지며 기술적 과정(skillful processes)이 밝혀지지 않으므로써 대부분의 사회복지실천의 개입기술들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에 한정되고 있다. 추상적 수준의 사회과학적 지식으로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기도 어려운 거시적 체계의 개입기술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정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강조하는 실존주의가치나 인본주의적 접근이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한 거시적 접근에 대해 유용성이 떨어지는 임상적 접근으로 일반화되는 것은 왜곡된 견해일 수 있다. 사회의 주류적 가치와 관점이 기능적인 지역사회개발이나 계획으로 이어지는 지역복지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강화와 참여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와 지역의 이슈에 대한 실존주의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권력으로 부터 소외와 아노미를 경험하는 자들을 삶을 수용하고 이를 외현화시키는 작업은 사회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기초가 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순수한 동기와 노력이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과성을 목적으로 추구되는 변화에 도구적인 가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주류사회의 전문가라는 지위를 통해 부여되는 기능적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서비스기관들이 지역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조건과의 상호영향력을 파악하므로써 개개인의 욕구나 문제에 개입하며 동시에 이를 사회적 구조나 조건의 변화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쟁점화시키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보수적이며 상부하달식 사업에 익숙한 전문가에 비해, 지역의 복지운동에 참여하게 된 활동가들은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전문가의 태도를 견제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밀착된 경험과 적극적인 사회운동적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의 능력을 축적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Miley와 동료들(2000)은 전통적인 실천의 원조과정인 사정-계획-개입-종결의 각 단계를 임파워먼트의 시각에 기초하여 재구성하므로써 시각의 변화가 직접적인 문제해결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과거사건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조사(social history)는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이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의 고통에 대한 역동성, 성장에 대한 욕구와 강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인식되며 전문가에 의해 선택된 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와 주변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대안들을 탐색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접근방법에 한계를 느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실천의 맥락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갈등적 시각보다는 체계의 한계를 수용하며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므로써 관계망이나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한다. 임파워먼트의 시각이나 구조주의 실천에서는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권력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부적절한 서비스체계의 문제에 직면하며 결핍된 자원을 권리로서 확보하고자 한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지지하며 연대를 도모하며 임파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과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대상의 임상적 개입기술을 필요로 하며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춰야한다.

또한,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넘어 집단이나 지역사회, 서비스환경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초점을 둔 집단적 임파워먼트가 강조된다. 사회구조에 대해 성찰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행동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배경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를 돕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재정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소집단은 집합적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며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의 기초구조가 된다. 집단화(collectivisation)전략은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단순한 해결차원을 넘어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이슈화하고 단체들을 통해 집단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개별화된 문제해결방식을 벗어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써 연대를 이루게 한다. 각 구성원들의 참여를 최대화하며 지역내 집단들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슈를 분석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기술을 집단과정의 기술과 함께 활용한다. 비판적 질문과 함께 토론을 유도하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나 의식고취(consciousness-raising)의 과정을 거쳐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며 대안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또한, 선택된 과업이 합의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지역성원들의 옹호활동에 참여하여 중재, 설득, 교섭, 압력행사, 강제등의 옹호기술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도록 돕는다(Kemp, 1998).

모순적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은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기관내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제공과정이나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직면을 통해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기능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저지할 뿐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가 조직의 제도와 클라이언트의 인생경험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이해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반응적이며 책임있는 조직과 서비스환경을 지지하며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기관은 클라이언트의 참여에 대해 개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며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므로써 클라이언트의 자존감과 참여동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주변환경과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경험을 얻도록 지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통해 모델링된 사회기술과 자신감등은 클라이언트가 지역내의 다양한 관계를- 자신의 가족과 이웃, 공동체- 유지,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IV. 나가는 글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맥락을 구성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는 활동이다. 이때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과 자원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실천의 맥락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이때의 의미는 보다 광범위한 실천의 제도적 환경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Rein & White, 1981).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제도변화와 지역사회 내부의 구조와 기능의 재편이라는 복지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이 되어 사회복지사의 실천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실천의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방식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내부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천의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천에 기초하는 패러다임을 명확히하고 거시적 변화와 미시적 개입의 연결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전문가는 탈가치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변화에 대한 판단과 개입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또한,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과 판단,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숙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을 인식하며,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선택과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화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방분권이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 뿐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환경에 관한 변화가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향을 실제화하는데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가에 관한 지역의 공동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서비스 수혜요건의 설정,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표현되는 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의 각 주체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체계를 구조화하고 그 제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검토하고 조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혜규. (200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200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46-72.
- 김종해. (1998)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상황과 복지, 4호, 13-32.
- 송다영. (2004)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54호: 295-319.
- 이인재. (2004) 지방분권 논의와 사회복지과제. 복지동향, 68호: 17-19.
- 이태영. (2002)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62-94.
- Imre, R., (1984) "The nature of knowledge in social work", *Social Work*, 29, 41-45.
- Kemp, S. (1998) Practice with communities. In C. Meyer & M. Mattaini (Eds.), *The Found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Washington, DC: NASW Press.
- Mullally, R. (1993) *Structural Social Work: Ideology, Theory and Practice*. Toronto: McClelland & Stewart.
- Mullender, A., & Ward, D. (1991) *Self-Directed Groupwork*. London: Whiting & Birch.
- Miley, K., O'Melia, M., & Dubois, B. (2001)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Boston: Allyn & Bacon.
- Reamer, F., 1983, "The concept of paternalism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57, 254-271.
- Rein, M., & White, S. (1981) "Knowledge for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55(1):1-41.
- Saleebey, D. (199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 Turner, F.(Ed.) (1986) *Social Work Treatment: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Free Press..
- Wakefield, J. (1996)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Part 1: is the perspective clinically useful?" *Social Service Review*, 70(1):1-31.